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자유스럽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생이나 미래 생이나 일체제불이 다 함께 한자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동서남북,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만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 아닌 바로 여러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보살도 다 같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질문부터 하십시오?

▶ 질문자(男): 제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어고에 재직하면서 2년 전에 3학년 답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학 진학을 발원하는 마음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출근하는 차 속에서 1년 가까이 매일 주인공을 관하고 오분향례, 반야심경을 봉송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에서는 제주도 여학생 수학능력시험 전체 수석, 개교 이래 명문대학 최다수 합격 등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원을 하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할 때는 '주인공의 나쁨으로, 지혜로움으로 모두 이익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관이 잘 안되는 경우, 스님께서 수많은 설법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라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 스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방편이죠, 방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이지만 그 방편도 없어서는 아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모두 힘이 없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편은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이나 방편이 아닌 것이나 올바로 하면 방편 아닌 그대로 실천이죠.

▶ 질문자(男):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작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됐던 소설 중에 『하늘이여 땅이여』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조선 오백여 년 동안에 왕위 계승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손뿐 아니라 왕후들의 원혼을 잘 달래지 못해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제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각산 아래에서는 누구도 끝이 좋지 못하므로 왕가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저도 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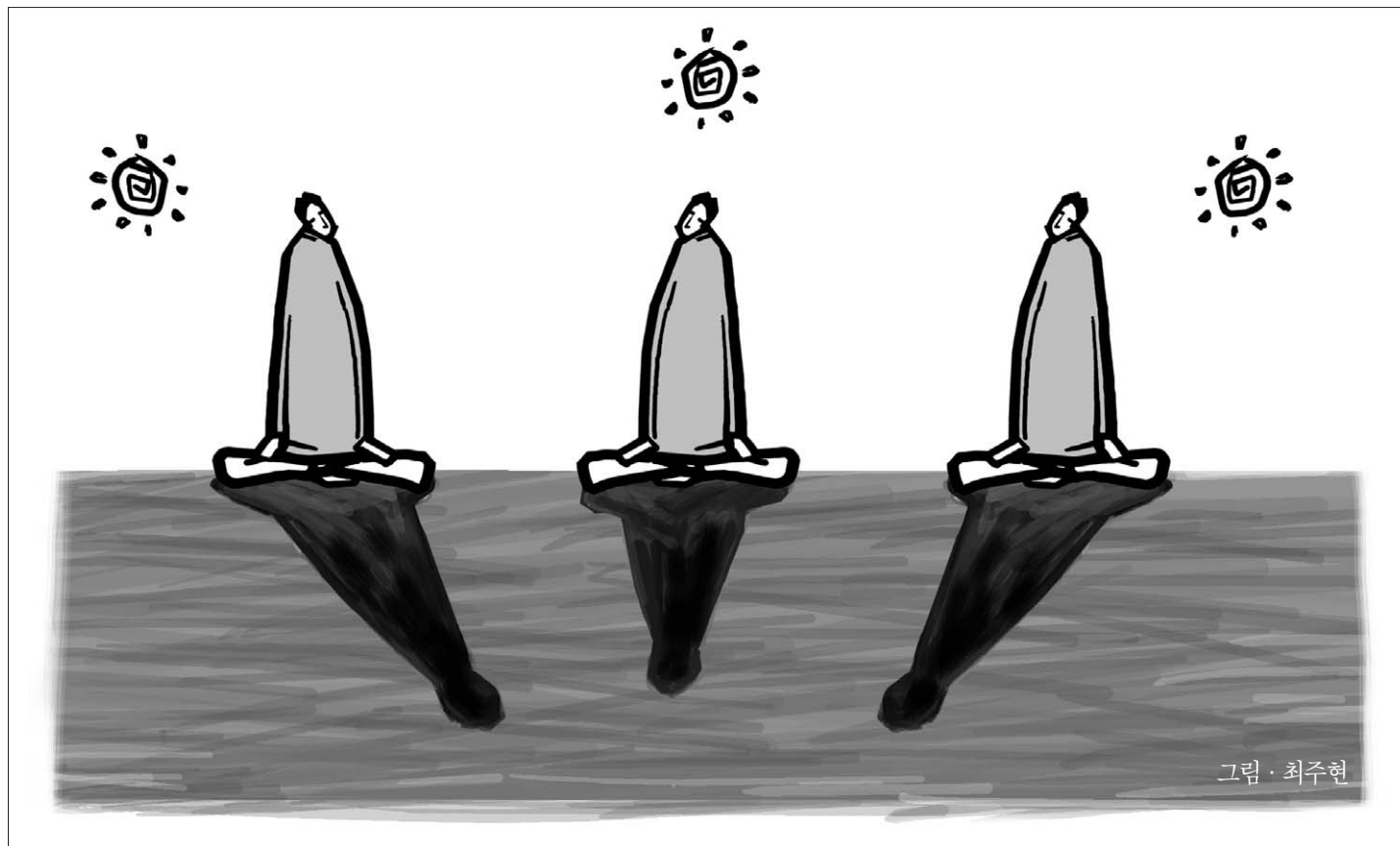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리지는 얹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한마음 공부하고 있는 불제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님: 그러면 그것과 관련하여 뜻으로 몇 마디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 필요한 점이니까요. 서방정도에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또 화엄경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즉 말하자면 무아의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처님 이름들도 수많지만, 우리 살아가는 생명들도 천차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또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천차만별의 업보라는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하도록 하고...

부처님 이름을 여래니 부처님이니 또 아미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두 이걸 깨닫지를 못

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이제, 즉, 일체 깨달다, 서방정도 아미타불이다, 부처님이다, 여래다,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부처님들이름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모두 그때그때에 따라 적합한 방향으로 모두 이름을 지어 놓았다는 겁니다.

경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말씀하신 건 살아가는 도리를 주로 전파하신 거죠. 생각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이게 선(禪)으로 가는 법이죠. 즉 무(無)의 법으로서 선법으로 가는 것이고,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선법이나 물질로 사는 사람들의 법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그 뜻으로써 법장(法藏)이 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본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을 만약에 이루어종차 전부 학으로 말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한마디 말할 것이 책 한 권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이. 그러니까 말로 배우시는... 말을 들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몇 마디 주워 담을 수가 없

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정도 부처님이든 어떤 부처님이든, 이 부처님 이름들이 수많다고 하더라도, 허공에 꼭 찻다 하더라도 그냥 한 부처님으로 섬깁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체에 비유를 해서 전체에 없는 게 없는 것이고, 또 아니 비치는 게 없는 것이고, 아니 하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인간들의 생산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우주에서 별성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일체의 생산체입니다. 또한 북두칠성에서는 살아 나가는 도리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만 산다고, 내 자유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아미타, 자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겐데 모두가 일불(一佛)입니다. 여러분한테 일불로, 자신의 자불(自佛) 가르칩니다. 지금, 자신의 자불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수많은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자불 하나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동적인 컴퓨터가 제가 꿈들 다 하나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순탄하고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전국이든 세계든 다 통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이 우주 전체에 전파를 하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코 정말이지 진자로 믿으십시오. 하찮은 나무들을 보세요. 제 뿌리 없이 그냥 모습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뿌리 없는 게 없더라, 그리고 씨가 없는 게 없더라, 씨를 심어야 먹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 때에 죽었다 해서 씨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영령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그대로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그냥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잘 써서 잘하고 나가는 사람이 할 때는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 이다라는 얘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것은 모두 자기 자신들이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사람을 어디다가 갖다가 놓고서 '이제 너를 올려놔야니까 앞으로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하라.' 이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하나도 할 게 없어요. 부처님의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승의 도리니 소승의 도리니 중승의 도리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한생각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생각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걸 알면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도 이걸 잘해야지.' 이런 게 스스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안 나가게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미타.

그러니까 마지막에 물으신 거를 생각해 볼 때

21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통)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 10월 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큰스님께서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은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